

[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]

**대우건설 인천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현장 매몰 사고 □**

안전기획팀  
'22.07.12. 11:30

□ **시공사** : (주)대우건설 (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)

□ **현장개요**

- 현 장 명 : 인천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(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2-8)
- 공사기간 : 2019년 07월 ~2022년 11월
- 공사규모 : 5개동(지하 3층, 지상 49층), 778세대
- 공 정 율 : 84%

□ **재해내용**

'22.07.12(화) 10시 00분경 배수관(오수관로) 매설 작업 중 트렌치 굴착 구간 하부에서 측량기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재해자가 무너진 흩더미에 하체와 가슴부위를 깔려 119 이송 후 치료중 사망

□ **현장사진**



□ **피해상황**

- ▷ 인적피해 : 1명 사망
- ▷ 물적피해 :

□ **사고원인 추정**

- ▷ 관로 트렌치 굴착시 토사 기울기(구배) 기준 미준수(수직굴착)

□ **당사 현장 조치사항**

- ▷ 재해사례 전파
- ▷ 토사 굴착 작업시 기울기(구배) 기준을 준수하고 필요시 간이 흩막이(TK판넬 등)를 설치
- ▷ 굴착한 토사 및 관로 등 적재물은 굴착상단부엿 굴착깊이 만큼 거리를 이격하여 적재
- ▷ 굴착작업시 상기 사고 사례를 위험성평가지 반영하여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

■ 언론 보도자료(한국경제 외)

# 대우건설 인천 현장서 근로자 사망...“중대재해 조사 중 “

지난 4월 이어 두번째 사망사고



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.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눈총을 받고 있다.

건설업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관로 공사 중 쏟아져 내린 토사에 하반신이 묻히는 사고를 당했다.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.

현재 고용부 관할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등 3명이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며, 안전보건공단 측도 함께 현장에 출동한 상태다.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.

편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작업 중 숨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다.

이로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두 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SK건설, DL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세번째가 됐다.

다만 대우건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, 이때문에 지난해에도 본사와 전국 62개 현장이 현장감독을 받은 바 있다.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우건설이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.

당시 고용부는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110건 적발하고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.

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산재 사고 8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를 진행 중이며, 이 중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태다.